閉會 인사

다케우치 : 그러면 가나모리 선생님께 폐회 인사를 부탁 드립니다 .

가나모리 : 지금까지 우리들 전원이 여기에서 몇 시간 동안 논의한 것으로 충분히 아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, 오늘은 매우 원리적인 내용과 개별 사례 , 양쪽 모두가 제기되어 화제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.

미국형의 'bioethics' 소위 생명 윤리가 생겨난 지 아직 30-40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식화 (定式化) 되고 , 관료화된 절차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. 즉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보다 훨씬 넓은 복잡한 관점에서 죽음과 삶에 관한 고찰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새삼 실감했습니다 .

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, 종합 토론 마지막 부분에서 이덕환 선생님과 다케우치 선생님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 바로 그대로입니다 . 과학적인 지견 (知見) 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, 그에 따라 확실히 여러 가지 생명관 내지 세계관도 변하고 있지만 ,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, 그것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날카롭게 파고드는 어떤 부분이 확실히 존재할 것입니다 . 사생학이라는 학문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 세계에 있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.

전체 토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. 오늘은 정말 훌륭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. 감사합니다 .

다케우치 : 그러면 끝마치겠습니다 .